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11>

JCCT 2023-1-2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Freshmen

정호주*

Jung Hyo Ju*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J 도와 G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신입생 25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진로 준비 행동은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 준비 행동에 시간 관리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총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여 신입생부터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야겠다.

주요어 : 신입생,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ethods and programs to raise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freshmen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time management,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or convenience from October 18 to October 31, 2021, targeting 255 freshmen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at universities located in J and G metropolitan c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real number,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0.0 progra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time management, and self-efficacy. As a factor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ime management behavior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18.8%.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a time manag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 time management skills from freshman.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eshme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Time Management

*정희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8월 14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Received: August 14, 2022 / Revised: November 17,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jhj127656 @hanmail.net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자기 적성과 능력을 고민하여, 준비와 실천을 실행하는 중요한 진로 발달 시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하게 된다[1]. 고등학교에서 교사 혹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입학 이후부터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 준비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게 되며[2],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개인의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3]. 학과의 특성상 간호학과 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 탐색 및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므로 [4],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5]. 특히 진로 전환 시기의 대학 신입생들이 효율적인 진로 준비는 대학 생활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과 신입생부터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개인이 기대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6], 특정 행동에 대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할 것인지,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7]. 대학생에게 있어서 낮은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 시 혼란과 갈등, 자신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8],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진로 준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전공 만족도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전공 교과목을 접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학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이 설정한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가지게

한다[1]. 대학생들이 전공에 관한 관심이 높고, 흥미가 일치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되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 성숙도 향상으로 이어져 한 개인 사람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10]. Kim et al. [11] 은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한 결과 진로 준비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변수의 빈도가 전공 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의 순서이며 전공과 관련된 요인의 연구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12][13], 전공 만족도와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시간 관리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병원에 취업 하여 3교대 근무와 더불어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간호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교 때부터 시간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친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할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고 행동하는 것이다[14]. 대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진로와 취업의 성공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15]. 즉 시간 관리 행동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 및 그것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하는데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2017~2018년 기간에는 매년 7편, 2019년에는 8편으로 발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변인도 25개 이상이었다[11]. 이런 연구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진로 준비 행동에 있어서 본격적인 취업 준비시기에 접어든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거나[12][16],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비록 대학 신입생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도 있지만, 대상자의 전공이 보건 의료계열은 제외된 경우거나 소수의 간호학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등만이 보고되었다[3][17]. 즉,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보건의료 계열에 속하는 간호학

과의 신입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중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입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취업 지원 커리어 로드맵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 도와 G 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적정 표본 수를 선정하기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예측요인 11, 효과 크기는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최소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78명이었다. 중도 탈락률 및 설문지의 완성된 제출률을 고려하여 27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270부가 회수되었으나 그중 설문지의

미응답, 이중 표기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하고 255부(94%)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는 Kim & Ha[18]의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를 Lee[19]가 전공 만족과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한 전공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 시간 관리 행동

시간 관리 행동은 Chae & Lee[20]가 개발한 시간 관리 척도를 Youn & Kim[2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2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Hong[23]이 일부 수정하고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4) 진로 준비 행동

진로 준비 행동은 Kim & Kim[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가 다니는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 담당 지도교수를 만나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나눠 준 후 수거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필요성 및 방법을 알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 작성에 드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였다. 본 연구는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이후 답례품 증정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쿠폰을 증정 이후 즉시 폐기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 및 최댓값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과 진로 준비 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여학생이 210명(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이는 20세가 168명(65.9%)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0-3.5학점이 85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한 달 평균 가계 소득은 301만 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113명(44.3%)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는 3.94±.51점, 시간 관리 행동은 3.08±.47점, 자기효능감 3.24±.34점, 진로 준비 행동은 2.45±.44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10	82.4
	Male	45	17.6
Age(year)	19	11	4.3
	20	168	65.9
	21	20	7.8
	≥22	56	22.0
Academic level	< 3.0	66	25.9
	3.0 - 3.5	85	33.3
	3.51- 4.0	79	31.0
	≥ 4.1	24	9.4
House income (month)	< 100	8	3.1
	100-300	52	20.4
	301-500	113	44.3
	≥ 501	82	32.2

표 2.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의 정도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Time Management,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55)

Variable	M±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3.94±.51	2.39	5.00
Time Management	3.08±.47	1.69	5.00
Self-Efficacy	3.24±.34	1.70	5.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45±.44	1.06	4.00

3.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 준비 행동은 전공 만족도(r=.28 p<.001), 시간 관리(r=.41 p<.001), 자기효능감(r=.2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표 3.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Time Management,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55)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Time management	Self 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Major Satisfaction	1			
Time management	.23 (<.001)	1		
Self efficacy	.30(<.001)	.50(<.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8(<.001)	.41(<.001)	.27(<.001)	1

표 4.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5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632	.278		2.271	.024
Major Satisfaction	.159	.052	.185	3.052	<.001
Time management	.305	.063	.325	4.846	<.001
Self efficacy	.077	.088	.060	.878	.381
R= .445 R ² = .198 Adjuste R ² = .188 F=19.714 p<.001					

다중공차 한계는 각각 .743-.905으로 0.1이상 이었고, 분산 팽창인자(VIF)는 1.105-1.391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차 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90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 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진로 준비 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9.714,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은 .188으로 진로 준비 행동을 18.8%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진로 준비 행동 영향요인은 전공 만족도(β =.185, p<.001), 시간 관리 행동(β =.325,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신입생의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진로 준비 행동은 5점 만점 중 2.45점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Shon[3]의 2.94점보다도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 준비 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이듯[13][25],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입생들로 고학년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 과정 및 결정이 부족하여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학과 특성상 학생 스스로 저학년 때부터 진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4학년 때 채용 공고가 나면 그것에 의존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적극적인 진로 준비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25].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겠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입생 때부터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는 진로 준비 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 준비 행동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6][26],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전공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27].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Yang & Park[28]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체계나 다양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진로 준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과는 대학의 취업지원처 및 일자리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 및 낮은 학생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로드맵 개발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9]와는 차이를 보이며,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후 자기 효능감의 향상 효과가 대조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도 부분 일치한다[29]. 간호학과 신입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표현되는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다소 일렀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자 중 신입생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3학년과 4학년의 졸업반이 대부분임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을 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진로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 시간 관리 행동은 진로 준비 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시간 관리가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30], 시간 관리 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 준비 행동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인 결과[14]와 맥을 같이한다.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 행동은 취업 준비에 대한 외로움, 고단함, 탈진을 예방하고 무능감을 감소시켜 취업 성취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세를 불러일으킨다[15]. 즉,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이 높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시간 관리를 못 하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시 대학생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줄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다. 나아가 최근에는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간, 월간, 연간 일정 및 할 일 목록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시간 관리 앱 사용에 관한 비교과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진로 준비 행동에 있어 시간 관리 행동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밝혀 간호대학생에게 시간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 관리 행동과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간 관리와 진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전공 만족도,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온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K.H. Gwon, and K.H. Shim,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major immers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major of food & culinary art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8, No. 5, pp. 88–103, 2022. <https://dx.doi.org/10.20878/cshr.2022.28.5.010>
- [2] Y.A. Ku, M.S. Seo, and S.S. 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0, No. 4, pp. 49–74, 2020. <https://dx.doi.org/10.35273/jec.2020.10.4.003>
- [3] K.S. Sh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freshmen moderation effect of self-ex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3, pp. 643–663, 2017. <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23.643>
- [4] J.Y. Park, H.N. Lim and D.R. Kim, “The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college: focusing on learning motivation, core competence, time management,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8, pp. 331–341, 2018. <https://dx.doi.org/10.15207/JKCS.2018.9.8.331>
- [5] E.J. Yeun, and Y.M. Kwo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2011.
- [6] M.O. Chae,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7, pp. 147–156, 2019. <https://doi.org/10.14400/JDC.2019.17.7.147>
- [7] H.R. Han, and J.M.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job 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focus on multi group analysis between university and junior colleg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4, No. 2, pp.197–206, 2016. <https://dx.doi.org/10.6115/fer.2016.016>
- [8] S.Y. Park, J.K. Kim, and T.Y. Le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2, pp. 376–384, 2011. <https://dx.doi.org/10.5392/JKCA.2011.11.2.376>
- [9] S.M. Nam,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and career preparation,”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 17, No. 1, pp. 21–43, 2021. <https://dx.doi.org/10.35173/NATR.17.1.02>
- [10] Y.M. Kim, and S.I. Lee, “The effect of major selecting motivation on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7, No. 1, pp. 157–165, 2021. <https://dx.doi.org/10.20878/cshr.2021.27.1.014>
- [11] S.N. Kim, M.S. Bang, H.Y. Shin, and S.K. Sohn,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pp. 225–237, 2020. <https://dx.doi.org/10.5977/jkasne.2020.26.3.225>
- [12] E.J. Lee, H.J. Kim, E.B. Park, J.H. Park, M.J. Jeong, and J.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 pp. 263–278, 2018. <https://dx.doi.org/10.22251/jlcci.2018.18.1.263>
- [13] T.J. Jang, and M.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4, pp. 344–352, 2016. <https://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14] S.J. Joh, “The influence of the time management education on self-efficacy,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6, pp. 755–781, 2014.
- [15] Y.K. An, S.G. Sang, W.R. Kim and M.K. Kim,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job search burnou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 6, pp. 271–285, 2020. <https://dx.doi.org/10.24159/joec.2020.26.6.271>
- [16] M.H. Kim and E.K. Byun,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137–145, 2021.

- <https://dx.doi.org/10.17703/JCCT.2021.7.4.137>
- [17]S.M. Jeong, "A qualitative study on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 of freshmen: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0, pp. 485-508, 2020.
- [18]K.H. Kim, and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1, No. 1, pp. 7-20, 2000.
- [19]D.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 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 1-48, 2004.
- [20]H.Y. Chae, and K.Y. Lee, "A typology on time management behaviors of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3, No. 11, pp. 211-224, 2005.
- [21]Y.O. Youn, and O.S. Kim, "University students' time management: affecting variables and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focusing on the students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6, pp. 71-82, 2007.
- [22]M. Sherer, J.E. Maddux, B. Mercandante,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https://doi.org/10.2466/prO.1982.51.2.663>
- [23]H. Y. Hong,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pp. 1-73, 1995.
- [24]B.W. Kim, and K.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31-333, 1997.
- [25]M.S. Kim,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7, No. 4, pp. 248-258, 2021. <https://dx.doi.org/10.11111/jkana.2021.27.4.248>
- [26]J.Y. Park and C.H. Woo, "Convergence effect factors 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t gence Society*. Vol. 8, No. 7, pp. 85-92, 2017. <https://dx.doi.org/10.15207/JKCS.2017.8.7.085>
- [27]J.S. Lee, J.E. Hong, M.S. Weon and S.H. Park,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environ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2, pp. 124-133, 2022. <https://dx.doi.org/10.5762/KAIS.2022.23.2.124>
- [28]Y.J. Yang and S.A. Park, "The effect of nursing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 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for nursing students in Chungcheong and Gangwon area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2, No. 10, pp. 903-930, 2020. <https://dx.doi.org/10.33645/cnc.2020.10.42.10.903>
- [29]M.J. Park and D.W. Choi,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339-349,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4.339>
- [30]J.Y. Park and E.K. Shim,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time manage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2, No. 2, pp. 213-230, 2016. <https://dx.doi.org/10.15820/khjss.2016.42.2.010>